



# 어린이 보호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2015 - 305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 주문

국민일보(kmlb.co.kr) 2015년 4월 3일자 「새벽에 한 남자가 보내온 끔찍한 사진 한 장」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2015.04.09 11:32>

『지난달 31일 새벽 밀양경찰서에 다급한 목소리의 112 신고와 함께 ‘끔찍한 사진’ 한 장이 전달된다. 팔뚝을 칼로 여러 차례 그은 듯 핏방울이 선연하다. 신

고자는 전 남자친구가 보내온 사진이라고 했다. 실연 때문일까? 남자에게 카톡을 보내봤지만 응답이 없었다.

경찰은 경험상 이 남자가 2차 자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즉시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최종발신 장소를 찾아낸다. 신속하게 야근 중인 형사, 112 타격대, 순찰차 6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을 모두 현장으로 보낸다. 하지만 40분 가량 기지국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도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중앙파출소 정진 경위와 부북파출소 손영수 경위가 도로를 걷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두 경찰관이 혹시나 싶어 그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니 와이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그가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새벽 시간대 경찰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훈훈하다.

김○○ 선임기자 t\*\*\*m@kmib.co.k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실연 때문에 칼로 자신의 팔뚝을 그은 남자를 경찰관들이 한 밤중에 수색 끝에 찾아내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는 <포토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남자의 팔뚝에 그어진 자상에서 선홍색 피가 흐르다 응고된 모습을 담은 사진은 잔혹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는 실제 사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층도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충격적이고 섬뜩함을 안겨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51 신문윤리강령 위반

### 全南日報 발행인 이재욱

#### 주문

全南日報(jinilbo.com) 2015년 4월 29일자(21시16분) 「아직도 섹스파트너가 없으신가요?svn56」 제목 등 다수의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유

1. 全南日報의 홈페이지 커뮤니티 난에 오른 각종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 ① 「Fun Fun Zone」

커뮤니티		FunFun Zone				
COMBID 19		HTTP://JINILBO.COM				
발언대/독자투고		TOTAL: 68, PAGE: 2 / 3				
오늘의 보도자료		NO	SUBJECT	NAME	DATE	HIT
자유게시판	38	→ ☆ 건국 1위 출장만남.애인대행 << SVN56.COM >>	로안스	03-04	6	
FunFun Zone	37	→ ☆아찔한 로맨스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SVN56.COM >>	로안스	02-27	7	
묻고답하기	36	→ 하루에 한영씩 책파를 소개시켜드립니다. =>SVN56.COM	로안스	02-21	9	
기사재보	35	→ 아직도 섹스파트너가 없으신가요?< svn56.com >	로안스	02-04	10	
테마 섹션	34	→ ★카지노게임★SBV56.COM★체험대니 30만원 공짜로드됩니다★대박나세요~~	어른이더	01-24	4	
전결로 본 세상	33	→ ★카지노게임★SBV56.COM★체험대니 30만원 공짜로드됩니다★대박나세요~~	어른이더	01-15	1	
타키 여행	32	→ @온라인 카지노 추천! sbv56.com @어른들의 안전 놀이터입니다.	어른이더	01-06	5	
티베트 기행	31	→ 말뚝론?만남사이트추천! vn53.COM &죽석 만남사이트?만남사이트	어우름	12-06	13	
눈술 속속	30	→ 조건만남.애인대행\VN53.COM \애인대행.조건만남	어우름	11-25	15	
포토/동영상 뉴스	29	→ 마담뚝\조건만남 애인대행 \애인대행 조건만남\Bus71.COM \책임지고 하루1영씩@!	어우름	11-15	17	
포토 뉴스	28	→ 초 소파드=섹파= BUS71.COM =회원들간의 섹파론 만남(성인만을위한 섹스파트너 매칭)	어우름	11-01	14	
우리고장 동영상	27	→ <환동영상> nullo999.com <섹1시 누님 100명의 남자들을 차례로 핸드잡부터	추방남편	10-22	28	
동영상 뉴스	26	→ 당신의 행복은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T V 7 8 7 8 . C O M	은리자	09-19	20	
오피니언	25	→ [re] [re] 고쪽살럼, 핵재처리 ...[3]	NPT활동	03-28	1505	
박상수 칼럼	24	미개봉.최선영화 100% 공짜다운로드!!	영호무로	02-26	1626	
서석대	23	현!! 9개월된 마기를~애 아버지가 미쳤나봐..	류시제	11-29	1755	
전일칼럼	22	노래방 섹시댄스...쓰러짐ㅋㅋ	류시제	11-29	2058	
데스크 칼럼	21	마로나.이미숙.샤론스톤! 나도 나우(now)족!	영신미안	09-27	3784	
취재수첩						
사설						
전일시론						

<이하 캡처시각 2015.04.29. 21:15>

## ② 「물고 답하기」

커뮤니티		물고 답하기																																																																																																										
발언대/특지투고 오늘의 보도자료 자유게시판 FunFun Zone 물고답하기 기사제보 대다 특전 판결로 본 세상 터키 여행 티베트 기행 눈물 속삭 포토/동영상 뉴스 포토 뉴스 우리고장 동영상 동영상 뉴스 오피니언 박상수 칼럼 서예대 전일칼럼 데스크 칼럼 취재수첩 사설 견원시론		TOTAL : 176, PAGE : 1 / 9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SUBJECT</th> <th>NAME</th> <th>DATE</th> <th>HIT</th> </tr> </thead> <tbody> <tr> <td>176</td> <td>▶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td> <td>sdfsf</td> <td>03-06</td> <td>9</td> </tr> <tr> <td>175</td> <td>▶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td> <td>sdfsf</td> <td>03-06</td> <td>6</td> </tr> <tr> <td>174</td> <td>▶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td> <td>sdfsf</td> <td>03-06</td> <td>8</td> </tr> <tr> <td>173</td> <td>3월 주재 '허세'에 대하여 읽고서..</td> <td>김병은</td> <td>03-03</td> <td>6</td> </tr> <tr> <td>172</td> <td>봉수산물상자, 정보상자, 종교피켓, 지역상자, 팔판</td> <td>김일훈</td> <td>01-16</td> <td>8</td> </tr> <tr> <td>171</td> <td>사원모집 (마르바이트하실분(남,여무관/시간선택가능))</td> <td>가을이</td> <td>12-09</td> <td>5</td> </tr> <tr> <td>170</td> <td>알짜해기 알바정보</td> <td>송승미</td> <td>11-05</td> <td>5</td> </tr> <tr> <td>169</td> <td>즐거움과풍요로움 [ H O O 7 9 , C O M ] 팀 추천</td> <td>조인영</td> <td>09-11</td> <td>17</td> </tr> <tr> <td>168</td> <td>남편보다 월급 조금더벌어 미안해요ㅠㅠ방법공개</td> <td>김희희</td> <td>07-26</td> <td>96</td> </tr> <tr> <td>167</td> <td>☆카지노☆ → LG300.COM ←</td> <td>김철민 드</td> <td>01-16</td> <td>203</td> </tr> <tr> <td>166</td> <td>☆카지노☆ → PSY300.COM ←</td> <td>김철민 드</td> <td>12-28</td> <td>225</td> </tr> <tr> <td>165</td> <td>☆카지노☆ → PSY300.COM ←</td> <td>김철민 드</td> <td>12-28</td> <td>198</td> </tr> <tr> <td>164</td> <td>☆카지노☆ → PSY300.COM ←</td> <td>김철민 드</td> <td>12-28</td> <td>207</td> </tr> <tr> <td>163</td> <td>최양적인 글물</td> <td>안희영</td> <td>11-22</td> <td>210</td> </tr> <tr> <td>162</td> <td>→ 안전한놀이터 추천 ← WWW. Q P R 7 . C O M</td> <td>xxxxx</td> <td>11-19</td> <td>215</td> </tr> <tr> <td>161</td> <td>마카오베네치안호텔3, 65인치 마카오베네치안호텔* 마카오베네치안 호텔</td> <td>dfdf</td> <td>11-19</td> <td>219</td> </tr> <tr> <td>160</td> <td>마카오국내에 마카오 마카오</td> <td>cccc</td> <td>11-19</td> <td>209</td> </tr> <tr> <td>159</td> <td>→ 하루에 50만원 벌수있는곳 ← WWW. Q P R 7 . C O M</td> <td>xxxxx</td> <td>11-19</td> <td>221</td> </tr> <tr> <td>158</td> <td>홍콩마카오자유여행마니라 홍콩마카오자유여행 *홍콩마카오자유여행</td> <td>dddd</td> <td>11-19</td> <td>218</td> </tr> <tr> <td>157</td> <td>필리핀방문하디스플래이 필리핀방문하 *필리핀방문하</td> <td>cccc</td> <td>11-19</td> <td>225</td> </tr> </tbody> </table>		NO	SUBJECT	NAME	DATE	HIT	176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9	175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6	174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8	173	3월 주재 '허세'에 대하여 읽고서..	김병은	03-03	6	172	봉수산물상자, 정보상자, 종교피켓, 지역상자, 팔판	김일훈	01-16	8	171	사원모집 (마르바이트하실분(남,여무관/시간선택가능))	가을이	12-09	5	170	알짜해기 알바정보	송승미	11-05	5	169	즐거움과풍요로움 [ H O O 7 9 , C O M ] 팀 추천	조인영	09-11	17	168	남편보다 월급 조금더벌어 미안해요ㅠㅠ방법공개	김희희	07-26	96	167	☆카지노☆ → LG300.COM ←	김철민 드	01-16	203	166	☆카지노☆ → PSY300.COM ←	김철민 드	12-28	225	165	☆카지노☆ → PSY300.COM ←	김철민 드	12-28	198	164	☆카지노☆ → PSY300.COM ←	김철민 드	12-28	207	163	최양적인 글물	안희영	11-22	210	162	→ 안전한놀이터 추천 ← WWW. Q P R 7 . C O M	xxxxx	11-19	215	161	마카오베네치안호텔3, 65인치 마카오베네치안호텔* 마카오베네치안 호텔	dfdf	11-19	219	160	마카오국내에 마카오 마카오	cccc	11-19	209	159	→ 하루에 50만원 벌수있는곳 ← WWW. Q P R 7 . C O M	xxxxx	11-19	221	158	홍콩마카오자유여행마니라 홍콩마카오자유여행 *홍콩마카오자유여행	dddd	11-19	218	157	필리핀방문하디스플래이 필리핀방문하 *필리핀방문하	cccc	11-19	225
NO	SUBJECT	NAME	DATE	HIT																																																																																																								
176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9																																																																																																								
175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6																																																																																																								
174	▶NO1 성인놀이방 누드달리의 환상누드쇼~!! ☆◀	sdfsf	03-06	8																																																																																																								
173	3월 주재 '허세'에 대하여 읽고서..	김병은	03-03	6																																																																																																								
172	봉수산물상자, 정보상자, 종교피켓, 지역상자, 팔판	김일훈	01-16	8																																																																																																								
171	사원모집 (마르바이트하실분(남,여무관/시간선택가능))	가을이	12-09	5																																																																																																								
170	알짜해기 알바정보	송승미	11-05	5																																																																																																								
169	즐거움과풍요로움 [ H O O 7 9 , C O M ] 팀 추천	조인영	09-11	17																																																																																																								
168	남편보다 월급 조금더벌어 미안해요ㅠㅠ방법공개	김희희	07-26	96																																																																																																								
167	☆카지노☆ → LG300.COM ←	김철민 드	01-16	203																																																																																																								
166	☆카지노☆ → PSY300.COM ←	김철민 드	12-28	225																																																																																																								
165	☆카지노☆ → PSY300.COM ←	김철민 드	12-28	198																																																																																																								
164	☆카지노☆ → PSY300.COM ←	김철민 드	12-28	207																																																																																																								
163	최양적인 글물	안희영	11-22	210																																																																																																								
162	→ 안전한놀이터 추천 ← WWW. Q P R 7 . C O M	xxxxx	11-19	215																																																																																																								
161	마카오베네치안호텔3, 65인치 마카오베네치안호텔* 마카오베네치안 호텔	dfdf	11-19	219																																																																																																								
160	마카오국내에 마카오 마카오	cccc	11-19	209																																																																																																								
159	→ 하루에 50만원 벌수있는곳 ← WWW. Q P R 7 . C O M	xxxxx	11-19	221																																																																																																								
158	홍콩마카오자유여행마니라 홍콩마카오자유여행 *홍콩마카오자유여행	dddd	11-19	218																																																																																																								
157	필리핀방문하디스플래이 필리핀방문하 *필리핀방문하	cccc	11-19	225																																																																																																								

(이하 캡처시각 2015.04.29 22:25)

## ③ 「오늘의 보도자료」

오늘의 보도자료				
TOTAL : 1327, PAGE : 1 / 133				
NO	SUBJECT	NAME	DATE	HIT
광산구청	1327 2015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안내	대한연구팀	01-08	16
남구청	1326 리리코스, 전남 신안에서 '속속 감동 나눔 캠페인' 진행	리리코스	11-12	9
동구청	1325 귀뚜라미회장, 최진민회장 대한민국 100대 기술 주역 선정	귀뚜라미	09-30	15
북구청	1324 100배 빠른 영예공식	gmy	07-25	242
서구청	1323 내병은 내가고치고 내가족은 내가지키자	gmy	07-25	237
전남도청	1322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와 '양치기 소년'	허두희	06-21	246
목포시	1321 ■윤건면허증위조▶0-7-0-7-9-5-1-3-4-5-6◀윤건면허증위조■	qst0505	06-13	243
여수시	1320 ■여권위조※여권위조■qst0505글병이@hotmail.com,■여권위조■	qst0505	06-09	277
순천시	1319 강,원현,드?월'드카,지노	상현일	06-04	245
나주시	1318 강,원현,드?월'드카,지노	상현일	06-04	257

(이하 캡처시각 2015.04.29 22:45)

## 2. 위 게시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南日報는 자사 사이트〈커뮤니티〉코너에 「Fun Fun Zone」, 「묻고 답하기」, 「오늘의 보도자료」란을 마련하고 독자들이 다양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코너는 대부분 섹스파트너 소개, 성인놀이방, 불법 도박, 여권위조 등 청소년 층에 유해한 불법광고물로 채워져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게시물은 상당수가 차단되어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그대로 열려있다.

우선 「Fun Fun Zone」을 살펴보면 「아직 섹스 파트너가 없으신가요?」가 눈에 띈다. 이 게시물은 지난 2월 4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올라와있으며 클릭하면 바로 「시크릿 로맨스」라는 섹스파트너 소개 사이트로 연결된다. 또한 「〈핫동영상〉 nulbo999.com〈섹시 누님 100명의 남자들을 차례로 핸드잡부터〉」라는 게시물을 살펴보면 선정적인 여성 사진과 함께 각국의 포르노 동영상 도메인을 게시해 놓고 있다.

「묻고 답하기」역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NO1 성인놀이방 누드딜러의 환상누드쇼~!!」를 눌러보면 「5년 운영 무사고」를 자랑하며 「바카라, 룰렛, 블랙잭, 식보」 등 각종 도박성 게임을 소개하고 있고 버젓이 온라인 접속주소도 게재해 놓았다. 접속주소는 「신천지 카지노」라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다. 「실시간바카라 최상위사이트! www.Q P R 1000.com!! BIG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역시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가능한 라이브카지노임을 설명하면서 도박성 게임으로 유도하고 있다.

「오늘의 보도자료」 또한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여권위조나 운전면허증위조 등을 주선하는 사이트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독자가 온라인게시판에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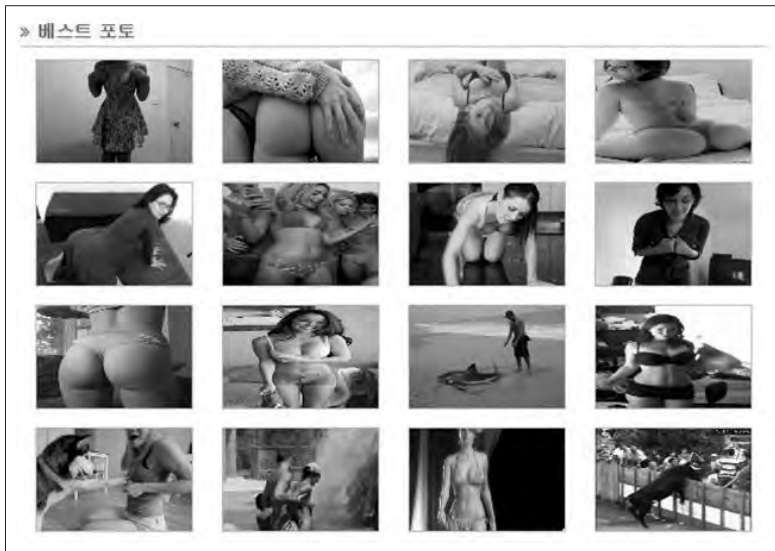
2015-3052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4월 12일자 「언니는 지금 뭐 하는 중」  
제목의 사진 등 다수의 네티즌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4.12. 18:45〉





〈캡처시각 04.12 18:47〉



〈캡처시각 04.12. 18: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 〈크림17〉이란 제목의 메뉴에 게시된 것이다. 〈크림17〉를 클릭하면 다시 하부 메뉴와 ‘최신 컨텐츠’가 나오고, 최신 컨텐츠 아래에는 〈베스트 포토〉라는 컷 아래 선정적인 사진 10여장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풍만한 엉덩이를 가진 여성이 선정적인 자세로 앉아 엉덩이를 떠는 사진, 엉덩이를 드러낸 여성이 성행위하는 포즈로 상하 운동을 하는 사진, 반라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 사진, 속옷을 입은 여성이 가슴을 어루만지며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등으로 독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월등한 체격의 여성이 가슴을 출렁거리며 뛰는 사진도 있고, 가슴골이 보이는 자세로 걸레질을 하는 사진도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움직이는 사진을 클릭하면 “언니 지금 뭐하는 중? 나랑 같이 할까나”는 설명이, 엉덩이를 쓰다듬는 사진에는 “막 만지고 싶고 그러지. 나도 그렇다”는 설명이,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에는 “그러다 침대에서 떨어지겠다. 밑에서 받아 줄까나” 등의 설명이 붙어있다.

신문이라기보다 성인 사이트의 초기 화면을 방블케 하는 사진이다. 접근에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위의 <크림⑰>의 ⑰은 '17세 이상 이용 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화·비디오·게임물 등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급에는 전체이용(관람)가, 12세 이상 이용(관람)가, 15세 이상 이용(관람)가, 청소년 이용(관람)불가 등이 있으나 17세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은 없다.

실령 미국의 'R(Restricted)등급'이나 '17세 미만 절대 관람 불가 등급(NC-17)', 일본의 BA-17 등급을 준용한 '17금' 분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보기에 부적절한 사진이나 내용을 연령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3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2. 세계닷컴 발행인 차준영

### 주문

국민일보(kmib.co.kr) 2015년 12월 5일자 「[영상] 2~3세 아기, 마리화나 피우는 동영상 확산 ... 美경찰 출처 수사」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 세계닷컴(segye.com) 12월 5일자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 ... 美 사회 '발칵」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 이유

1. 국민일보, 세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영상] 2~3세 아기, 마리화나 피우는 동영상 확산 ... 美경찰  
출처 수사

입력 2015.12.05 03:12 수정 2015.12.07 15:08



미국 소셜미디어 상에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이 만 2~3세가량의 아기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동영상의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동영상 속 아기는 기저귀를 차고 유아용 의자에 앉아 종이에 말아놓은 마리화나를 왼손에 쥐고 흡입한 뒤 짙은 연기를 연거푸 뿜어낸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한 성인 남성이 아기에게 흡입 방법을 가르치고, 행동을 고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찰은 “특수사건 전담반이 화면에 보이는 상황이 실제인지,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전날 시카고 지역 사회운동가 앤드루 홈즈의 제보로 경찰에 알려졌다.

NBC방송은 “화면 캡처 당시 동영상에는 이미 500개 이상의 ‘좋아요’가 클릭됐고, 12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전했다.

ABC방송은 일리노이 주 아동가정복지부와 주 검찰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홈즈는 “동영상이 실제 상황이라면, 아기에게 신속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아기 얼굴을 식별할 수 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OO 기자 y\*\*\*oi@kmib.co.kr」

(세계닷컴)= 『입력 2015.12.05 15:00:38 수정 2015.12.05 18:2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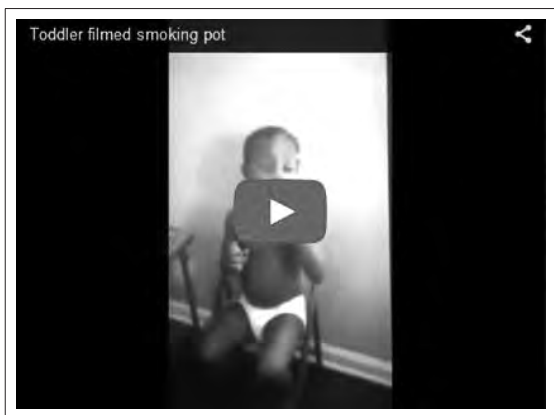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 ... 美 사회 '발칵'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이 확산돼 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최근 만 2-3세가량의 아기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하고 출처 추적에 나섰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동영상 속 아기는 기저귀를 찬 채 유아용 의자에 앉아 종이에 말아놓은 마리화나를 왼손에 쥐고 흡입한 뒤 짙은 연기를 연거푸 뿜어댄다.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기에게 흡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옆에서 행동을 고무하는 목소리를 낸다.

시카고 경찰은 “특수사건 전담반이 화면에 보이는 상황이 실제인지,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 아동가정복지부와 주 검찰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와 세계닷컴은 마리화나 피우는 아기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美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동영상도 함께 게재하였다. 내용 자체도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기사 상단

의 사진에서 아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과는 달리 동영상에서는 아기의 실제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신원을 공개하였고, 금지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보다 2시간 앞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고, 세계닷컴은 일부 문장을 잘라내고 단어 몇 개를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③(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331 신문윤리강령 위반

###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 주문

문화일보 2015년 11월 4일자 14면 「안전위협하는 ‘위험한 장난’ 동영상 심각」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 모여 있다. 한 남학생이 사물함에 다가가더니 사물함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부탄가스를 주입했다. 곧 이어 가스가 가득 들어찬 사물함의 작은 구멍 쪽으로 불 붙은 종이를 던지자

순식간에 사물함이 불길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웃고 탄성을 쏟아낸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된 '위험한 장난-사물함 폭발시키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학생이 사물함에 불을 붙이자(왼쪽 사진) 사물함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험한 장난-사물함 폭발시키기'라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은 고등학생들이 교실 내 사물함을 폭발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장난이 도를 넘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급정거시키기, 라이트로 자신의 신체 일부 지지기 등 자극적이고 위험한 놀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촬영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나 SNS 등에 올리면서 더 자극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경쟁까지 벌이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일 동영상 모음 사이트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내기에서 졌다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라이트로 지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학생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촬영하던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한 초등학생이 달려오는 차로 뛰어들어 차가 급정거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동영상도 있었다. 이를 촬영하던 아이들은 놀라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깔깔대며 웃었다.

동영상을 올린 청소년 대부분은 아무런 위험 의식이 없어 보였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모(여·15) 양은 "SNS나 블로그를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게시글의 인기를 더 높이기 위해 재밌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

들이 있다”며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극적인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거나 장난의 수위를 더 높이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25) 씨는 “지난달 5학년 학생 세 명이 교정을 걷는 다른 학생들을 맞히겠다고 4층 창문에서 우유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이를 웃으며 촬영하는 것을 보고 혼낸 적이 있다”며 “우유에 고춧가루와 밀가루 등을 넣고 사람을 향해 던지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 했다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따라 할 수 있는데도 위험한 놀이가 담긴 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위험한 장난-사물함 폭파시키기’라는 청소년의 자극적이면서 위험한 놀이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그 놀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까지 올렸다.

기사는 『한 남학생이 사물함에다가가더니 사물함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부탄가스를 주입했다.』며 『곧이어 가스가 가득 들어찬 사물함의 작은 구멍 쪽으로 불 붙은 종이를 던지자 순식간에 사물함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위험한 장난’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다. 불장난의 도구인 부탄가스를 사물함에 주입하고 불을 붙이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 셈이다. 또 편집자는 이 동영상을 캡처해 사물함에 불을 붙이는 장면과 이후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내보냈다.

위 기사와 사진은 청소년들에게 유사한 놀이 충동을 자극할 수 있고, 어린이에게도 유해해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세계닷컴(segye.com) 2016년 1월 21일자 「어린 딸들에게 ‘보드카’를 ... 카자흐스탄 남성에 네티즌 분노」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21 11:39>

<<http://www.segye.com>>

『어린 딸들에게 ‘보드카’를 ... 카자흐스탄 남성에 네티즌 분노』

입력 2016.01.21 11:11:38 수정 2016.01.21 11:26:02

어린 딸들에게 보드카를 따라주는 남성이 영상으로 공개돼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가 정말 보드카를 따랐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이들에게 술자리 흥내를 내게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논란 여지가 충분하다.

영국 미러 등 외신들은 “딸들에게 보드카를 가르치는 한 남성 때문에 네티즌들이 화가 났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2분 분량 영상은 카자흐스탄의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시기는 불분명하다.

영상에서 남성은 작은 유리잔에 보드카를 채워 딸과 나눠마셨다. 이들은 ‘건배’ 자세를 취했으며, 보드카를 넘긴 아이는 맛이 쓴 듯 얼굴을 찡그렸다. 남성은 딸에게 안주를 건넸고, 아이는 날름 받아먹었다.

노란 옷차림의 아이는 5~6세로 추정된다. 옆에는 그보다 어린 여자아기가 있었는데, 남성의 둘째 딸로 보인다. 네 살 정도로 생각되는 아이는 영상 마지막에 아빠가 건넨 보드카를 함께 마셔 더 큰 충격을 줬다.

남성이 정말 보드카를 따라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아이들과 술자리 흥내 영상을 찍은 것만으로도 남성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상에는 한 여성의 웃음소리도 등장하는데, 그는 남성의 아내로 전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드카가 아니라 다른 음식일 수도 있다”며 “물 혹은 물약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미리는 “카자흐스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정말로 남성이 딸들에게 보드카를 먹인 것으로 밝혀지면, 당국은 벌금형을 내리거나 아이들을 안전 시설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기자 k\*\*\*harr@segye.com 사진= 영국 미러 캡처」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카자흐스탄의 한 남성이 4~6세로 추정되는 어린 두 딸들에게 보드카를 따라주고 마시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전세계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실제 보드카를 따라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점으로 미뤄 단순한 장난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 층 및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동영상 내용을 중계방송하듯 자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사진을 3장이나 게재한 것은 보도의 목적이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고발기사라기 보다는 선정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3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2월 15일자 「중국어 또 ... 10대 여학생 옷 벗겨 집단 구타」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중국서 또 ... 10대 여학생 옷 벗겨 집단 구타』

입력 2016.02.15 11:04 수정 2016.02.15 11:05



중국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또다시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5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人民網)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 공개돼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달 21일 허베이성 형수이 안핑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학생 세 명이 한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모습이 2분 30초 분량으로 담겨 있다. 가해 여학생들은 또래 여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뒤 옷까지 벗겨가며 비웃는 등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영상은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인 지난 3일 공개된 이후 급속도로 퍼져 나가며 중국 대륙을 뒤흔들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마스크를 쓴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의 옷을 벗겨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중국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논란이 되자 가해 여학생들은 모두 경찰에 자수했으며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다. 이들은 모두 10대였으며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 여학생 중 1명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형사 미성년자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 여학생 모두 적절히 처벌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진·영상= 중국 상하이 인터넷신문 평파이신원왕(澎湃新闻网)

영상팀 seoultv@seoul.co.kr」



〈캡처시각 02.15. 11: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중국 여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면서 상의를 벗기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2분 29초 분량의 동영상엔 여학생 한 명이 3명의 여학생들에게 뺨을 맞는 등 집단구타 당하다가 상의가 벗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에서 폭력성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집단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가감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